

주간기도정보

2024. 4. 30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음세대 헌신자 감소, 창조적 해법 필요

한인세계선교사회(KWWMF), 선교계 지도자들과 다음세대 선교 동원 해결책 모색



‘다음세대 선교동원 및 전략을 위한 선교대회’가 한인세계선교사회(KWWMF) 주최로 24일(수)부터 27일(토)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대회에는 80개국 이상에서 선교하는 323명의 해외 선교사들과 국내 선교단체의 다음세대 사역자들, 각 교회 차세대 리더들이 모여 선교계의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했다.

심화하는 저출산과 그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는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선교 현장은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가 계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주최 측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역의 미래를 준비하게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다”고 했다.

청년 선교사를 모색하는 자리에 청년은 없었다. ‘2023 한국 선교 현황’을 입증하듯 현장에서 2030세대 선교사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웠다. 중보기도 자원봉사자로 참석한 황두선(28) 씨는 “반나절 동안 청년 선교사를 만나지 못했다”며 “기성세대의 선교 유업을 이어받을 자리에 다음세대가 없어 아쉽다”고 했다.

방도호 대표회장은 첫날 기조연설에서 “다음세대가 선교 현장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요청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미래 사역의 주체들이 세계 선교사의 꿈을 꾸고, 시니어 선교사들은 효과적인 선교 이양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선교지도자들이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학생 20명을 채우지 못해 동아리 교실을 배정받지 못하는 캠퍼스 기독교동아리의 현실은 다음세대 동원을 위해 선교계에 결심을 촉구하게 한다”며 “이번 대회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붙을 지펴, 한국의 2024 애즈베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뜨거운 집회를 통해 헌신 카드로 선교를 작정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청년들은 단번의 헌신-결단보다 인생의 형성사로 선교를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의 선교 동원대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회-선교단체가 연합해 긴 동원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택식 강의 강사로 나선 선교한국 최읍 사무총장은 “다음세대는 헌신보다 교육과 발견을 원한다. 다음세대에 대한 선교 멘토링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선교한국대회에서 선교를 결심한 2030 청년 70명을 대상으로 선교헌신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특별집회보다 멘토와 대화를 거쳐 헌신을 각성한다고 답한 청년들이 더 많았다고 소개했다.

대회 중 강의를 맡은 선교사들은 “결국 선교 현장을 이어갈 다음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 감소와 한국교회 숫자의 감소로 인한 선교지망생이 부족해지는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며 “다음세대가 있는 곳, 다음세대가 추구하는 것, 다음세대가 활동하는 곳에 가야 한다. 이들과 전방위적인 만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질수록 선교에 도전하는 청년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장 방도호 선교사와 사무총장 이근희 선교사는 “다음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고 앞선 세대의 유산을 계승하는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대회가 한국 선교의 변화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종합).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로마서 1:16)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마태복음 13:44)

하나님, 고령화되는 선교계가 차세대로 이양되어야 할 이때, 기독교어리와 교회의 다음세대 감소의 영향으로 선교현장이 절박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국과 세계적인 흐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녀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보다 세상의 성공과 가치에 내어준 우리의 죄악임을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음세대 선교 동원을 위한 전략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한국교회에 회복시켜 주사 우리 자손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청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완성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온 교회가 마음 다하여 순종케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마지막에 이르러 네 육체가 큰 악에 빠지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편 중독된 북한 주민 사망 사례 연이어 발생

아편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며 의약품 대신 사용...중독자 늘어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아편 중독에 걸린 주민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 13일 길주군에서는 아편 중독으로 이혼당해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인민반장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평소 하루에 2번 이상 아편을 복용해 온 그는 경제난에 아편을 구하지 못하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아편에 중독돼 집까지 팔아 떠돌이 생활을 하던 5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전언이다.

북한에서 아편은 오래전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설사 등 비교적 흔한 질병에도 아편을 복용할 만큼 의약품 대용으로 많이 쓰인다. 심지어 아편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 노년층에서 정기적으로 아편을 주사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의약품 대신 아편을 사용하다 그 과정에 양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자주 복용하면서 중독자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단속을 피해 몰래 아편을 재배하면서 중독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함흥시는 빙두(필로폰)를 생산하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전국에서 빙두 사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에 속했는데, 최근에는 돈이 없어 빙두 대신 아편을 맞기 시작했다”며 “아편에 중독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아편이나 빙두 같은 마약을 사고파는 것은 원래 단속 대상인데 안전원들이 뇌물을 받고 무마해 주는 식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대책은 없고 제대로 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국제범죄 전문가인 이관형 박사의 인터뷰를 통해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은 나라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국은 자금을 마련하려 무기와 마약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국가가 주도해 생산한 마약 대부분은 외국으로 수출되었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보건의로 서비스가 멈춘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마약이 본격적으로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김성은 목사는 “북한에서 서민은 수술받으려면 마취제, 주사기, 거즈, 붕대 등을 사 들고 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병원 안에는 의료용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무상 의료체계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 수익을 위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의료인력을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달 초부터 의사 인력을 선발하였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외화벌이 인력으로 파견된 나라들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도 있지만 아프리카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에 파견되는 이유에 대해 “저개발된 나라는 결제 수단이 주로 현금거래이고 병원이 많지 않아 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일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에도 안 걸리고 수익도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월 초 아프리카 파견을 앞둔 200여 명의 의료진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이미 파견된 외화벌이 의료진 외 추가되는 인력”이라고 언급했다(출처: 데일리NK,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혼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잠언 5:11-12,15)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태복음 9:12-13)

하나님, 치료를 위해 시작된 일이 쾌락을 향한 중독이 되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십시오. 극심한 가난 속에 마약 거래 단속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길 만큼 정의가 없이 어둠의 사슬에 갇혀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더 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을 살피사 이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며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증인이자 선교완성의 주역으로 세워주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음이라”

막 오른 2024 청년 다니엘기도회...‘나는 누구의 것인가’

첫 강사 이정규 목사, 말씀 따라 진짜 자아 발견할 것 강조



‘2024 청년다니엘기도회’가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매일 저녁 서울 강동구 오른교회(담임 주경훈 목사)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네 번째 진행되는 청년다니엘기도회는 이 시대 청년들의 치유와 회복, 부흥을 위해 예배, 연합 등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시작됐다. 전 세계 약 3,600개 교회가 참여했다.

기도회는 청년층을 겨냥한 강사와 찬양팀, 문화공연팀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전은주 전도사-아이자아썩스티원 등 청년 사역자부터 가수 송지은, 유튜브버 하준파파 등 크리스천 유명인까지 총출동한다. 특히 교회 로비에는 크리스천 브랜드들의 팝

업스토어와 버스킹 예배 등 문화 행사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첫날 기도회에서 '나는 누구인가'(고전 4:3-4)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정규 시광교회 목사는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면 이 질문을 '나는 누구의 것인가'로 바꿔보자"면서 "세상은 '내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것', '나는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시대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정체성에 있었다. 이 목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언급하며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죄인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던 정체성"이라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보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세계관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며 "바울은 나는 남의 것이라 말하지도 않고, 나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교리를 말한다.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진짜 자아,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 간다"며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이다. 우리 같이 이 사실을 믿고 내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고 했다.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청년들이 인생의 진짜 목적을 찾게 되길 바란다"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란다. 예수의 보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 믿어지길 바란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데일리굿뉴스, 국민일보 종합).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로새서 3:3-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24-25)

하나님, 어둠이 짙은 현시대의 기독 청년들에게 말씀을 통해 영적 각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을 외치며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세상 가치와 거짓에 속아 나로 여겨왔던 옛사람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을 발견케 하소서. 청년들의 앞날을 진정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들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쁨의 헌신이 다음세대에 이어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누리며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